

영등포민자역사시설증축공사계획에관한수정재촉구건의문(안)

| | |
|----------|----|
| 의안 번호 | 15 |
|----------|----|

발의년월일 : 2002. 9. 13

발 의 자 : 박정자의원의외14인

1. 주 문

철도청의 영등포민자역사 시설증축계획중 영화관 증축공사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많은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중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매연·진동·소음·쓰레기문제 등과 주변상권을 침해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문제가 우려되어 공사계획을 즉각 중지토록 2001년 7월 5일 우리구 의회에서 건의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영등포구 주민과 영등포구의회 의견을 수렴한 수정 건의문으로 재촉구 건의하고자 함.

2. 제안이유

가. 영등포구는 공업발달의 시발도시로서 국가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초석을 이룬 뿌리 깊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영등포를 구현하고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바,

나. 수도 서울의 서남부 교통 중심 축인 영등포지역은 하루 수만 대의 통과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매연·진동·소음·쓰레기문제 등의 심각한 피해로 인한 고통을 영등포구민이 부담하고 있는 시점에,

다. 특히 영등포 민자역사 시설증축공사계획은 수도권 서부지역의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되는 요인이 발생되어 교통혼잡, 대기오염, 쓰레기문제, 오염물 배출, 소음 등을 가중시켜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영등포구가 부담하고, 그 혜택은 롯데역사(주)가 누리게 되므로 영등포구민의 환경권 및 생존권을 위해 영등포민자역사 시설증축공사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함.

영등포민자역사시설증축공사계획에관한재촉구건의문

철도청에서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618-496외 11필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영등포민자역사에 열차이용 승객의 편의제공과는 관계가 적은 문화시설(영화관)을 증축하기 위하여 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구 건축과에 심의를 요청해 오는 등 롯데역사(주)의 수익사업 일환으로 증축공사 절차가 계속 진행중에 있는 바,

우리 영등포구는 공업발달의 시발도시로서 국가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초석을 이룬 뿌리깊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영등포를 구현하고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도 서울의 서남부 교통 중심축인 영등포지역은 하루 수만 대의 통과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매연·진동·소음·쓰레기문제 등의 심각한 피해로 인한 고통을 영등포구민이 부담하고 있는 시점에,

특히 영등포 민자역사 시설증축공사계획은 수도권 서부지역의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되는 요인이 발생되어 교통혼잡, 대기오염, 쓰레기문제, 오염물 배출, 소음 등을 가중시켜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영등포구가 부담하고, 그 혜택은 롯데역사(주)가 누리게 되므로 영등포구민의 환경권 및 생존권을 위해 영등포 민자역사 시설증축공사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재촉구 건의한다.

1. 영등포민자역사 시설에 단순히 영화관 9개소를 증축한다는 것은 영등포지역의 발전보다는 인근 수도권 지역의 많은 유동인구가 영등포로 유입되는 요인을 발생시켜 서울 서남부의 교통 중심축인 영등포지역에 심각한 교통대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계획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2. 자동차 매연, 진동, 소음공해, 오염물 배출, 쓰레기문제 등 이에 따른 고통은 영등포구민이, 그리고 재정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인 영등포구가 부담하게 되는 바, 영등포구민의 환경권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기업의 단순한 수익목적사업만을 고려한 영등포민자역사 증축공사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

2002. 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원일동